

푸르게 더 푸르게... 명품 무안 남악신도시 '변신 중'

무안군, 218억 투입 20여개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남악이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온전한 명품 신도시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푸르른 녹색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산림과 공원 등 야외시설 이용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건이 따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무안군이 자연과 숲에 대한 주민들의 '녹색 욕구' 증가에 대응하고 남악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명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안군은 남악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8년부터 남악신도시 내 도시숲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이란 도시나 마을 등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 녹지 등을 뜻한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며, 도시 경관 향상과 열섬 현상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청 앞과 전남도립도서관 앞 도로변에 동종목 58주를 보식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남악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마쳤고, 남악 미세먼지 차단숲과 자전거공원 옆 생활환경숲은 조성중에 있다.

남악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 도시숲 사업으로 남악 수변공원과 자전거공원 일원에 숲을 조성해 영산강 하구 일원의 녹지축을 연결한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을 심어 대불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주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악초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사이에 따죽지 형태의 숲을 조성해 보도·차도 분리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 경관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남악초와 오룡유치원 사이 도로 250m 구간에 흥가시와 황금사철 등 색채감 있는 수목을 심어 아름답고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었다.

남악 자전거공원에서 시그니티 요양병원을 지나 중심으로 들어가는 도로 변에 남악 생활환경숲도 조성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녹지 공간이 확보돼 일상 생활에서 숲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산강 제방의 야간 이용객을 위해 1.2km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남악 중심에 있는 죽산과 해뜨는 언덕을 정비해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푸르게
도서관·초등학교·자전거공원 등 미세먼지 차단하고 열섬 완화 영산강 제방 야간 경관 조명도

더 푸르게
내년 죽산·해뜨는 언덕 도시숲 미로원·숲속놀이터·유실수원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추가

남악 한가운데 위치한 죽산과 해뜨는 언덕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시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미로원·숲속놀이터·유실수원·향기오름·숲속쉼터 등 다양한 주제의 도시숲을 조성해 주민들이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남보전환경연구원 옆 철도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토지 사용 협의를 진행중이다.

일로읍 오룡지구 개발과 인구 증가를 고려해 오룡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룡호반씨티아파트 윗편에 흐르는 죽양 소하천 주변 생활환경숲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녹색 문화숲 확충을 위해 전남도청 뒤 오룡산과 호수 주변에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청사 남악호수 일원은 도민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며 주거지와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녹음이 드문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그늘을 주는 큰 나무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도청 주변 일



예술 작품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남악 중앙공원은 도시에 위치해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자연과 숲에 대한 '녹색 욕구'를 풀어주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무안군 제공)

원을 정비해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숲을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남악을 대표하는 산인 오룡산 둘레길을 새로이 만드는 '오룡산 오감길 조성사업'도 내년에 조성 완료된다.

계단 없는 등산로 조성을 콘셉트로 특색 있는 상록수로 이루어진 명품 둘레길을 만들 예정이며,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된다.

오룡산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숲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주민들이 도심속에서 숲 속 치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뿐 아니라 실내까지 정원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오룡 행복초등학교 내에 생활밀착형 숲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학교 내의 냉난방, 미세먼지 등 실내 유지 화합물 농도 저감을 위한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 하반기 개최된 정원페스티벌을 통해 어려움을 겪던 인근 상가들의 매출도 10~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녹색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과 정원 사업을 확대하고 남악신도시가 사회 기반과 생활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탄탄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아이도 어른도 숲을 배운다

황토골 정원사 양성교육·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

무안군은 도심 속 명품 숲·정원 사업과 함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과 정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황토골 정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황토골 정원사 양성교육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의 기능·설계·시공·관리 등 정원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시공에 관한 실습과 견학을 통해 정원 조성의 과정을 이해하고 시공 능력을 키우는 사업이다.

교육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지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158명이 교육을 이수해 활동 중이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 2017년 남악 대죽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숲·나무·곤충·야생동물 등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배움거리와 나뭇잎 탁본뜨기·손수건 꽃물들이기·솔방울 부엉이 만들기 등의 자연놀이 중심 즐길거리, 산림욕·풍요 등 걸거리로 구성돼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대죽도 유아숲 체험원에서 프로그램을 1268회 운영해 2만2996명의 아이들이 체험에 참여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미세먼지 차단숲 수변공원(왼쪽), 자전거공원 조감도.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조선팝 국악이 날다

- 국악, 창조적 K-뮤직으로 변신
- 방송가 강타하는 국악 열풍
- '조선팝스타' 우승 구례 출신 소리꾼 김선숙
- 크로스오버 국악으로 감동, 창조적 소리꾼들

기획 2021 문화계 결산

문학 출판 - 돋보인 광일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
전시 - 3개의 국제 비엔날레 동시 개최
공연 - 작고 격 있는 무대들, 관객 갈증 덜어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첫 솔로 앨범 발표한 그룹 '포레스트라' 멤버 강형호
이적 2년차 홀드왕 거머쥔 KIA타이거즈 불펜 투수 장현식

해외문화기행 ①
예술의 도시 프라하를 가다
인적 끊긴 카를교에 다시 바이올린 선율이 흐른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신사를 가다 ⑦
봉정사
깊은 불심, 단아한 모습
봉황설화 간직한 고찰

예향 초대석

46년 연극의 길 걸어온 배우
윤석화
"연극은 대담 되어질 수 없는 질문"

특별기획-전라남도 여행
Jeollanam-do Local Tour

- 강진 푸소 & 일주일 살기
- 남도 유일 서평연구소, 고흥 남일 해수욕장
- 걷는 걸음마다 자연의 숨소리, 남도정원
- 고택체험, 구례 운주루와 쌍산재

전시 화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작가의 진지한 사선'
정희승 개인전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⑥
영화 '킹스맨'과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향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⑥
좋아했던 방아찜 향기 많은 삶 살았던 화가 하인두

매력물담시대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20대의 젊음으로 찾아낸 목포의 구석구석